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김 룡 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 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 세계에 당당히 앞서나가는 가장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 가장 긍지높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자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자강력이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다시말하여 그 누구의 도움이나 방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믿고 자체의 노력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높이고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길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일떠세워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남이 해줄수 없으며 또 남을 믿고 해나갈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현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한껏 떨쳐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자면 오직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 힘을 스스로 키우고 강하게 하며 그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강화하여 그 위력으로 다그쳐나가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자기의 강한 힘을 스스로 키워나갈 때만이 남의것을 쳐다보고 남의 도움을 바라는것과 같은 사대와 외세의존사상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있으며 또 자기의것은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남의것을 그대로 본따는 교조주의적인 관점과 태도를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만일 자기 힘을 스스로 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불피코 사대와 외세의존, 교조주의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자기의 힘으로 일떠세우고 자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나갈수 없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자기의 힘뿐이며 자기의 힘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목표를 자체의 힘으로 점령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그 누구를 믿거나 남의 도움을 바라고 항일대전을 선포한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일제를 물리치기 위한 혁명전쟁에 떨쳐나섰다. 바로 자기의 힘

을 굳게 믿은 혁명가들이었기에 그들은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고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강대성을 자랑하던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을 되찾았다.

그처럼 준엄하였던 전화의 나날에도 우리의 영웅전사들은 자강력으로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고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후 재더미속에서도 자강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보란듯이 일떠세웠으며 남들이 수십수백년을 거쳐 수행한 공업화의 역사적과업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힘있게 떨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세기말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도 자강력으로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토대를 억척같이 다지였다.

백승으로 수놓아진 우리 혁명의 자랑찬 역사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날에 날마다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승리와 성과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적극 살려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날 자강력은 부강변역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이고 백절불굴의 정신력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필승불패의 힘이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자강의 길만이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길이기때문이다.

우리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 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것과 함께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하게 뚫고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우리앞에는 지금까지 헤쳐온 시련과 난관에 비할수 없는 시련들이 가로놓여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정치군사적침략과 경제적봉쇄를 비롯하여 갖은 모략과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우리 당은 남들이 백걸음, 천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으로 단축하고 남들이 이룩하여놓은 성과들을 단숨에 뛰어넘어 줄기차게 내달려 내 조국을 단연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울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우리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세상이 부러워하게 일떠세우자면 그 활로를 하루빨리 열어놓아야 하며 그러자면 그 어느때보다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활로는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자기의 힘을 부단히 강하게 하는 사람만이 열어나갈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의 힘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 자기의 힘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는 사람은 천리도 지척처럼 보이고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지척도 천리처럼 생각하게 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겠다는 신념과 의지는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사람, 자기의 힘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사람만이 지닐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부족한것이 많다고 하여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자체의 힘으로 열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강력제일주의를 삶과 투쟁의 기치로 틀어쥐고 오직 자체의 힘을 믿고 그 힘을 강하게 하여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있으며 오늘은 자강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자강력제일주의를 백승의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만난을 헤치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인민은 없다.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지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는 절대로 변할수 없다.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하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수입병과 같은 잡사상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주체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력사의 생눈길을 과감히 헤쳐나가는 불굴의 정신과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가 극복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요새도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만을 받들어 자강력으로 백승을 펼쳐온것처럼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우리의 힘을 더욱 억세게 키워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